

A Thousand Year

Damien Hirst 'A Thousand Years'

소 머리가 부패하며 구더기가 생기고, 그 구더기가 파리로 자라 날아가다 전기충격기에 죽어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과 함께 순환하는 죽음의 진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유리 진열장, 한 쪽에는 잘려진 소머리가 바닥에 있고 그 위에 전격 살충기 (Electrocutor)가 걸려있다. 다른 한 쪽 통 안에 담겨진 구더기가 자라 파리가 되어 칸막이 틈에 난 구멍을 통해 썩어가는 소의 머리를 먹고 날아 다니다 전기 살충기에 의해 죽는 구조의 설치물, 소의 머리는 전시장 가득 쉼은 약취를 진동하며 썩어들어가고 파리들은 이를 먹기 위해 달려들고 다시 파리는 전기 장치에 의해 죽어가고, 다시 부패되어 썩어가는 소 머리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그 구더기는 또 파리가 된다.

writer's pick!

신의 사랑을 위하여
(For the Love of God)

이 작품은 18세기 사람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실제 해골에 8601개의 다이아몬드를 박아 만든 것이다.데미안 허스트는 전체 제작비만 도 200억원에 달하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죽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죽음의 궁극적인 상징인 두개골에 사치와 욕망의 상징인 다이아몬드를 덮어버림으로써 '죽음이여 가라'고 외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알약 캐비닛
(Pill Cabin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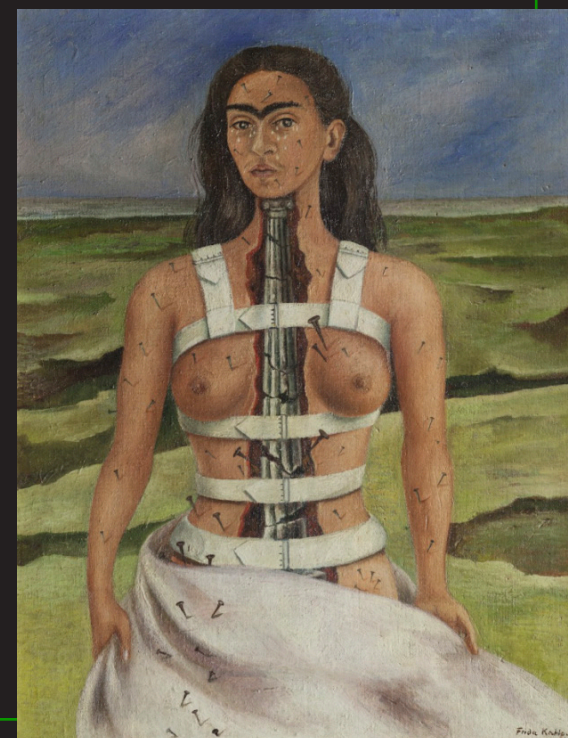
알약이 배열된 약장은 거울로 만들어져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을 비춘다. 작품을 관람하다가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 사람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과 약에 대한 맹신, 그리고 약이 갖는 모순과 한계 등을 생각하게 된다. 약장과 알약 캐비닛. 허스트는 삶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오브제가 약인 것을 이용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두 명의 프리다 (1939)

이 작품에서 흰색 드레스와 전통 의상을 입은 두 명의 프리다를 그려 서로 다른 인격체임을 나타냈으며 유럽식 흰색 드레스를 입은 프리다를 자신의 분신으로 표현했다. 프리다는 리베라와의 결혼과 이혼의 위기를 둘러싼 감정 상태를 전통 의상과 유럽식 의상으로 나타냈다. 전통 의상 테우아나를 입은 프리다는 남편 리베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시절을 나타내며 유럽식 의상을 입은 리베라는 이혼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를 의미한다.



부러진 기둥 (1944)

프리다 칼로가 척추수술을 받은 직후, 자신의 고통과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여 그려냈다. 슬픈 눈, 얼굴에 맺힌 눈물, 온몸 가득 못이 박혀 있으며, 몸을 관통하는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은 부서져 있다. (이오니아 양식은 오리엔트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적인 경쾌함과 우아함이 특징이다.) 몸을 감싸는 천으로 부서진 몸을 붙잡고 있다.



상처받은 사슴 (1946)

'상처받은 사슴'은 자신의 머리에 불이 달린 젊은 숫사슴으로 묘사되었다. 사슴의 몸에 박힌 화살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상처로 인한 고통과 디에고 리베라와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나타낸다. 사슴 뒤로는 죽은 나무와 부서진 나뭇가지가 있는 숲으로, 두려움 절망의 감정을 암시한다. 나무 사이 저 멀리 폭풍우가 치는 번개 빛 하늘이 그려져 있다.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작가는 "운명"을 의미하는 "카르마"라는 단어를 적었다. 그녀의 다른 자화상들처럼, 이 그림에서 프리다는 그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슬픔을 표현했다.

